

황조롱이 날고 수달 노닐고... 7천여 동식물 '생명의 강'

햇 올리는 江 동서통합시대 화합의 江 섬진강

10 생태계

반달곰·삿·술개·산작약·노랑붓꽃 등
멸종위기 1·2급 동식물 폭 넓게 분포
꾸준한 연어 방류, 해마다 회귀 늘어
11개 지자체 '협업체' 구성 보존 도모

수달, 삿, 담비, 황조롱이, 솔부엉이, 도롱뇽, 무당개구리, 유혈목이, 쇠살모사, 참갈겨니, 쉬리, 물고기, 검은 물장자리, 장수꿩등이, 다슬기, 꼬마물방개... 시인 윤동주가 별을 헤며 기억했던 '경' '옥' 이국 소녀들처럼 유혈목이, 쉬리 등은 사라지고 잊혀진 그리운 이름들이다.

국내에서 보기 힘들어진 이들 생물들은 다행스럽게도 넉넉한 남도 들녘을 감고 흐르는 섬진강에 숨어 살고 있다. '생명의 강' 섬진강을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영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7000종의 생명체 터전=섬진강 일대에는 산업시설과 공단 등이 비교적 없고, 지리산을 끼고 있어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 1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리산·섬진강 일대에는 6977종의 동식물과 곤충이 살고 있다.

이 중 반달가슴곰, 수달, 매, 얼룩새코미꾸리, 산골딱나비는 멸종위기 1급이다. 또 담비, 삿, 하늘다람쥐, 올빼미 술개, 새솔리기, 표범장지뱀, 모래주사, 물장군, 비단벌레, 예기물소똥구리 등의 생물들은 멸종위기종 2급이다.

이 밖에 가시오갈피나무, 개뽕, 기생꽃, 노랑붓꽃, 백부자, 산작약, 세뿔투구꽃, 복주머니란, 석곡 등 멸종위기 2급 식물들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야말로 지리산·섬진강 일대는 한반도 생물도감이랄 수 있다.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은빛 연어=섬진강은 연어의 고향이기도 하다. 국내 5대 강 가운데 가장 맑고 깨끗한 섬진강은 매년 모친 회귀 어종인 연어가 돌아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연어 방류 활동과 생태 보존 노력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수도 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섬진강 하류에서 포획한 연어는 모두 158



섬진강 인근에는 7000여종의 동식물과 곤충이 서식하고 있다. 사진은 동식물의 주요 서식처 중 하나인 곡성읍 곡성을 장선리 일대의 섬진강 습지 모습.

〈곡성군청 제공〉

마리리 지난 2012년 포획된 79마리보다 2배 증가했다. 전남도는 어미 연어 158마리에서 수정란을 생산해 생태관 종보존동에서 관리, 67만개의 수정란을 양생해 섬진강 어린연어 방류행사 때 6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섬진강에서 연어 방류사업을 처음 펼친 것은 지난 1998년으로, 지난해까지 치어 551만5000여 마리를 방류했다.

연어는 하천에서 부화한 어린 연어들이 북태평양에서 2~5년 동안 어미 연어로 성장한 뒤 10~11월 사이 1만8000km의 긴 여정을 거쳐 모친(母川)인 섬진강으로 돌아와 산란한 뒤 생을 마친다.

◇생태 보존을 통한 동서 화합=섬진강의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근 영호남 지자체의 활동도 눈에 띄어야 한다. 동서화합을 위해 섬진강의 생태 보존이 중요한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섬진강환경정책협의회(회장 정현태 남해군수)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등 섬진강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담은 '섬진강 선언'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섬진강 하류지역은 하천 유지용수가 부족하여 바닷물이 강의 상류로 밀고 올라와 주변 농경지와 재첩 생산에 피해를 주고 민물 생태계의 건강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섬진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는 생활경제권을 뿌리내리는 공동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는 남해군, 하동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순천시,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이다. 섬진강을 지키겠다는 목적에 따라 영호남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소통을 시작한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강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상류와 중류, 하류에서 공통의 노력이 있어야 하듯 섬진강의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가 협력하면서 자연스럽게 화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섬진강 일대, 문화·관광·생태 복합벨트로”

전남연 나강열 연구위원 3대 프로젝트 제안

생태계의 보고 섬진강 일대에 문화와 관광, 생태가 어우러진 복합벨트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나강열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섬진강 에코 천릿길 조성방안' 보고서를 통해 "섬진강 유역에 산재해 있는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생태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은 이를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지리산 관광특구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선호관광지 조성, 섬진강 생태문화관광지대 구축, 섬진강 복합생태관광열차 등을 제안했다.

나 위원은 이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섬진강 상류지역의 지리산권과 하류지역의 광양만권을 연계해 전남 동북부의 새로운 거점으로

섬진강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3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세부 사업으로 섬진강변 단절 구간 생태교량 연결, 지방도 861호선 주변 정자형 전망휴게소 여울마루 조성, 섬진강과 지리산, 동악산을 연계한 가람갯길 구축 등 8대 사업을 제안했다.

또 섬진강 예술거리 아트리움과 공공예술지구 도입, 곡성기차마을과 서시천, 망덕포구 농부장터 운영 섬진강 나루터 포구 재생사업, 섬진강 레포츠지구 조성 등도 덧붙였다.

나 연구위원은 "이 섬진강 에코천릿길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성격에 따라 추진주체를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으로 구분하고, 섬진강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섬진강 생태계 보존을 위해 지난해 연어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협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1 시공전 / 단열메이스트시공
2 단열메이스트시공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텔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IPALG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